

옛 강진농고 '전남생명과학고'

국내 첫 농업계 마이스터고 되나

도교육청, 교과부에 지정 요청 ... '평가 기준 완화'

전남도교육청이 전남생명과학고(옛 강진농고)를 국내 최초 농업계 마이스터고(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로 지정키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역민들은 최종 지정권자인 교과부가 농업계고 활성화와 전남의 열악한 산업여건을 감안, 심사 주요 항목인 산업체와의 취업약정 등 평가기준의 대폭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2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이번 주 중 생명과학고를 친환경 농업 부문 마이스터고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협의요청서를 교과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생명과학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농업계열 학교 중 국내 최하다. 마이스터고는 철저하게 산업현장 위주 실습교육을 실시하며, 교육비·기

숙사비 등 학비가 면제되는 특목고다. 정부가 취업지원은 물론 기업체 체험학습, 해외연수 기회를 보장한다.

도교육청은 생명과학고가 올 안으로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면 오는 2012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과학고는 친환경 농업·친환경 식품·바이오 농산업과 등 모두 6개반, 120명을 선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마이스터고 지정에 앞서 연차별 지원예산(150여억원) 확보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마이스터고 지정심사에서 산업체와 협력이 가장 높은 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걸림돌이다. 이 부문을 충족하려면 생명과학고

연관 산업체와 100여명 이상을 취업시키겠다는 약정서 등을 제출해야 하지만,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남의 산업환경이 열악한데다 농업계 졸업생을 원하는 산업체가 전무한 탓이다. 이 기준 때문에 지난 2008년 광주·전남지역 9개 학교가 마이스터고 지정에서 무더기 탈락했다.

전남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생명과학고 졸업생이 농업에 종사할 경우 취업으로 인정하는 등 마이스터고 심사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생명과학고는 지난 1937년 감전공립농업학교로 개교한 후 지난해까지 모두 1만여명에 달하는 농업전문인을 배출했다. 마이스터고는 현재 광주·전남지역에 2곳이 있다.

연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중·고 과목별 F학점 재이수제 검토

교과부, 성취도 평가 수위미양가-'ABCD(F)'로

교과 성적이 매우 불량한 중고교생들에게 대학생처럼 재수강의 기회를 주는 '교과목별 재이수제'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소한의 학업성취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보충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의견을 묻고자 학부모·교사 등 3만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교과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 전제 조건으로 학업평가 방식을 5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고, 성취도 평가를 기존의 '수위미양가'에서 'ABCD(F)'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교과목별로 최소한의 학업성취 수준을 설정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면 '재이수(F)'로 표기하되 학교 생활기록부에는 평가결과를 기재하지 않도록 했다.

연영뉴스

열차역·대합실 등 구제역 방역활동

코레일 광주본부

코레일 광주본부는 오는 31일까지 각 역(驛)과 맞이방(대합실) 등에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대대적인 방역활동을 펼친다고 25일 밝혔다.

방역 장소는 광주역·송정역·목포역 등 20개소의 맞이방·대합실 출입구이며, 각 열차 객실 안에서도 방역활동을 벌인다. 방역 장소에는 발판 소독주·손 소독기가 설치된다. 코레

일 광주본부는 또 맞이방·객실 등에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대국민 행동요령 안내물을 게시하는 한편, 전광판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 계획이다.

코레일 광주본부 신준호 본부장은 "설 연휴(2월 2일~6일)를 앞두고 열차 이용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국립대학 단과대 확장

총장이 직접 임명한다

다음 달부터 국립대학 단과대 학장을 총장이 직접 임명한다.

또 외부인사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는 교원채용특별위원회에서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유능한 교수를 특별채용할 수 있게 돼 그동안의 '밀실특채' 시비를 없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공포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시행될 예정이다

연영뉴스

광신대 등록금 동결

목포대도 동결 동참

광신대학교가 등록금 동결에 참여했다.

광신대는 25일 최근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광주·전남지역 사립대학교 가운데 남부대와 함께 2곳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했다.

이와 함께 전남대와 순천대에 이어 목포대도 이날 등록금 동결을 선언해 지역의 일반 국립대들은 모두 등록금을 올리지 않게 됐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오늘 날씨, 계속 추워요, 기온, 강수량, 주의, 눈, 낮, 밤, 최저/최고, 기상내선전화: 국번없이 131



운암도서관 기공식 25일 광주시 북구 운암동 제3근린공원에서 열린 구립 운암도서관 기공식에 참석한 송광은 북구청장 등 주요 인사들이 발파 단추를 누른 뒤 박수를 치고 있다. 48억7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 구립 운암도서관(면적 1851㎡)은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오는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설맞이 전통시장 장보는 날' 행사, 광주 서구 양동시장서, 설을 맞아 광주시 서구가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을 펼친다.

국제보청기,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전자 습기제거기 (Avantgarde), 본점 062-227-994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광주 MBC 문화탐방, 방콕·앙코르와트, 무안↔방콕 직항 전세기 2011.1.30 ~ 3.27 (총 17회), 799,000부터, 899,000부터, 1,049,000부터, 1,349,000원